

보도시점 2026. 6. 23.(화) 16:00  
< 6.24.(수) 조간 >

배포 2026. 6. 23.(화)

## 한-튀르키예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공동위원회 개최

- 한-튀르키예 FTA 이행 현황 점검 및 관련 현안 논의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튀르키예 제6차 FTA 공동위원회를 6.23(화)~24(수) 양일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 이민영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정책관 직무대리와 튀르키예측 휴스뉴 딜렘레(HÜSNÜ DİLEMRE) 무역부 EU·국제협정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튀르키예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이자 중동·북아프리카와 인접한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양국 간 교역 규모는 '13년 한-튀르키예 FTA 발효 이후 지속 확대되어 2023년 최초로 100억불을 돌파하고, 2025년 106.6억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 한-튀르키예 교역액(억불): ('12) 52.2 → ('13) 63.5 → ('18) 71.7 → ('23) 104.3 → ('25) 106.6

한국의 對튀르키예 수출은 2012년 45.5억불에서 2025년 90.9억불로 99.7% 증가하였고, 튀르키예의 對한국 수출은 2012년 6.7억불에서 2025년 15.7억불로 133.3%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의 對튀르키예 투자는 2025년 12월 기준 누적 투자건수 1,176건, 투자금액은 45.9억불로 같은 기간 튀르키예의 對한국 투자액 1.2억불의 38배에 달하며, 투자 비중은 제조업이 4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 포스코 등이 유럽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튀르키예 내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해 진출하여 튀르키예 내 생산, 고용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튀르키예로 수출되는 한국산 소재와 부품은 튀르키예 내 기업의 생산 공정에 투입되고 있어 한-튀르키예 간의 공급망과 산업협력 강화에도 기여해왔다.

이번 제6차 공동위원회에서는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튀르키예측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진행 중인 수입규제 조치 증가에 따른 우려를 전달하고, 국제규범에 맞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현지 진출 기업이 겪고 있는 통관·인증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튀르키예측은 對한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그 밖에 위생·식물위생조치(SPS) 분야의 상호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 튀르키예의 對韓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치는 총 19건이며, 현재 4건 조사 진행 중

담당 부서	통상협정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도엽 (044-203-5750)
	통상협정이행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영 (044-203-5756)

